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지혜로운 삶 (롬 12:1-2)

후원금전달 한빛선교봉사회

한빛선교봉사회(회장 조영원, 이하 봉사회)가 신학생 및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16일 부에나과크 갈보리선교교회(담임 목사 심상은)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조영원 회장은 “후원금을 받은 신학생과 선교사들이 열심히 목회와 선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 며 “보람 있는 일에 많은 한인들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봉사회는 이날 신학생 1명과 선교사 4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1999년 봉사회 창립 이래 약 100여 명의 신학생과 선교사에게 지급된 후원금은 약 15만 달러에 이른다.

▶ 문의: (714) 351-4499

독후감공모 수상자 발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이하 협회)가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관련기사 본보 1338호 46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입상자를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버지니아 거주 송정임 사모(세인트 존스 UMC), 우수상엔 김봉춘 선교사(몽골 베다니마을교회), 그리고 장려상에는 손문식 전도사(은혜한인교회)와 한원 권사(산호세 임마누엘 교회), 전효진 사모(애틀란타한인교회)가 입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목) 실시간 콘텐츠 실시간 공유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입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최우수상 500달러, 우수상 300달러, 장려상 200달러)가 전달된다.

▶ 문의: (213) 663-4340

세상을 사는데 있어서 우리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에게 어떠한 일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열매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향락, 오락, 연락(宴樂)에 빠져 살아 갑니다. 또 어떤 분은 물질(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귀신을 불러 들여서 그 귀신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낮은 자는 높여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삶을 살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삶이 바로 몸을 드리는 삶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대궐 같이 넓은 집에 살아도 얼굴 표정이 심각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나 부요할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대중 속에 있을 때나 항상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있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함께 공존하면서 피차간에 서로 행복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완전 범죄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떳떳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맑은 물에 고기떼가 물리듯이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을 내버리면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꼭 차있지 아니하면 악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침투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여'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습을 좇는 옛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교만과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의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이나 성품,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두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마냥 즐겁고 아름답게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이 없고 꾀역한 이 세대에 오염되지 아니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이 없고 꾀역한 이 세대에 오염되지 아니하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종진 목사-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